

## 내/외집단으로부터의 차별적(differential) 신념 지지율이 개인의 집단정체 관련 신념의 변화에 대한 저항에 미치는 효과\*

나 은 영

Yale University

집단정체 관련 신념들(identity-relevant beliefs)에 관한 두 개의 가설을 검증했다: (1) 개인의 집단정체 관련 신념들이 집단정체 비관련 신념들보다 설득에 대한 저항(resistance)이 더 강할 것이라는 가설, 그리고 (2) 내/외집단으로부터의 차별적(differential) 지지(대부분의 내집단 구성원으로부터의 지지와 대부분의 외집단 구성원으로부터의 반대) 조건이 비차별적 최대 지지(대부분의 내/외집단 구성원으로부터의 지지) 조건보다 전반적인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집단정체 관련 신념들의 변화에 대한 저항을 더 크게 일으킬 것이라는 가설. 실험 1과 실험 2는 미국 Yale대학교 학부생들(자연과학 전공생들과 인문학 전공생들)의 전공 관련 신념들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고, 실험 3은 여학생이면서 여권운동(feminism)을 지지하는 Yale 학부생들과 남학생이면서 여권운동을 지지하지 않는 Yale 학부생들의 여권운동 관련 신념들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피험자들은 먼저 (1) 컴퓨터 화면에 제시된 신념 문항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 후, (2) 내/외집단으로부터의 신념 지지율 분포와 자신의 신념을 공격하는 글을 읽고 나서, (3) 그 문항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다시 한번 표현하도록 했다. 첫번째 가설은 실험 1에 의해 지지되었으며 두번째 가설은 실험 2와 실험 3(여학생 여권운동가들의 자료)에 의해 지지되었다. 추가적으로, 세 실험 모두에서 내집단으로부터의 신념 지지율은 집단정체 관련 신념의 변화에 대한 저항을 예언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 반면, 외집단으로부터의 신념 지지율은 집단정체 관련 신념의 변화에 대한 저항을 예언하는데 부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이것은 내집단과 근본적으로 반대되는 신념을 지닌 외집단의 경우, 외집단으로부터의 지지가 아닌 공격 또는 위협(threat)이 집단정체 관련 신념의 변화에 대한 저항을 일으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 본 논문은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미국 Yale 대학교)에 수록된 6개의 실험들 중 연구 초기 단계에 미국에서 실시하였던 3개의 예비실험들(preliminary experiments)만을 국문으로 번역한 것이다. 한국에서 실시한 본실험들은 저자의 논문 지도교수였던 Robert P. Abelson 교수님과 공동으로 영문 학술잡지에 제출할 예정이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해 本誌를

위한 원고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예비실험 단계에서부터 연구비 지원은 물론 실험 설계에서 분석에 이르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Abelson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이 실험들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언어: PASCAL)에 도움을 준 Yale 대학교 심리학과 대학원 동료 Robert Rist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신념들(beliefs)<sup>1)</sup> 중에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적 집단(social group)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념들이 있다. 성별, 인종, 종교, 또는 정당 등과 같은 개인의 소속 집단(group membership)이 그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를 표현(express)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소속 집단과 관련되는 신념들도 개인의 정체(identity)를 보다 명확하게 밝혀 주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생명 존중 협회(Pro-life Association)”에 속해 있는 어떤 사람이 “낙태(abortion)는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 “생명 존중 협회”라는 집단의 명칭(label) 자체는 물론 낙태 반대(anti-abortion)에 관한 구체적인 신념들도 그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value)—이 경우는 “생명 존중”이라는 가치—를 표현하는 기능을 한다. Katz(1960)의 용어를 빌리면, 이러한 신념들은 “가치 표현적 기능(value-expressive function)”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자기 정의(self-definition)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정체 관련 신념들(identity-relevant beliefs)은 이와 같이 보다 근본적인 “가치”의 문제를 함의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설득에 대한 저항력(resistance to persuasion)이 정체 비관련 신념들(identity-irrelevant beliefs)보다 더 강할 가능성이 많다. Johnson과 Eagly(1989)에 의하면, “가치 관련 관여(value-relevant involvement)”란 “중요한 가치들과 연결되어 있는 태도가 활성화됨으로써 일어나는 심리 상태(the psychological state that is created by the activation of attitudes that are linked to important values)”를 말한다(Johnson & Eagly, 1989, p.290). Johnson과 Eagly(1989)는 가치와 태도 변화의 관계에 관하여 “가치 관련 관여의 경우, 고 관여(high involvement) 피험자들이 低 관여(low involvement) 피험자들보다 설득이 덜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근에 Lydon과 Zanna(1990)는 가치 관련성(value relevance)이 악조건(adversity) 하에서 피험

자들의 개입(commitment)의 정도를 예언할 수 있음을 밝혔다. 여기서 “개입(commitment)”이란 “자기 표현적(self-expressive)이라고 여겨지는 사회적 관계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자기 자신을 애착(attachment)시키는 것”을 가리키며, 따라서 “사람은 자기가 볼 때 어떤 일이 자기 자신의 근본적인 모습을 표현(express)하거나 실현(fulfill)하는 것이라고 생각될 때 그 일에 개입한다”(Kanter, 1972, p.66). 구체적으로 Lydon과 Zanna(1990)의 보고에 의하면, 학생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연구 과제(projects)가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진단(diagnostic), 즉 표현하는 것이라고 지각할 때, 악조건 하에서(즉, 스트레스와 난이도가 높은 경우) 그 연구 과제에 더 많이 개입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Crocker와 Luhtanen(1990)은 집단적 자존심(collective self-esteem)이 높은 사람들이 집단적 위협(collective threat)에 직면했을 때 자기들의 집단적 정체(collective identity), 즉 사회적 정체(social identity)를 보호하려는 경향이 더 강함을 보였다. 그들의 실험 결과는 또한 집단적 자존심과 집단적 위협은 선천적으로 정해진 집단정체(ascribed group identity)에만 작용하며, 단지 “다르다(different)”는 것만이 강조되는 최소집단 실험 설계(minimal group paradigm)의 임의적인 집단정체(arbitrary group identity)에는 작용하지 않음을 시사했다(cf. Turner, 1978).

본 연구는 Turner, Hogg, Oakes, Reicher, 및 Wetherell(1987)의 자기 범주화 이론(self-categorization theory)에서처럼,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자기가 속한 사회적 범주(social categories)에 비추어 정의하는 경향이 있다고 기본적으로 가정한다. 본 연구는 또한, Tajfel과 Turner(1979, 1986)의 사회적 정체 이론(social identity theory)에서처럼, 사람들이 긍정적인 사회적 정체(positive social identities)를 얻고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Tajfel과 Turner의 이론들이 단순 범주화(mere categorization)를 중요시하는데 비해(예: Tajfel, Flament, Billig, & Bundy, 1971; Turner, 1978), 본 연구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중요하고(important) 어느 정도는 구속력이 있는(compelling) 집단 정체들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sup>1)</sup> 본 논문에서는 신념(belief), 태도(attitude), 및 의견(opinion) 간의 개념적 구분을 강조하지 않고 모두 넓은 의미의 신념 속에 포함시켰다.

Tajfel과 Turner(1986)의 사회적 정체 이론의 주요 주장 중의 하나는 “두 개의 뚜렷이 구분되는(distinct) 집단에 단순히 속한다는 생각이-즉, 사회적 범주화 그 자체가-내집단에 호의적인 집단간 차별(intergroup discrimination)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p. 13). 사회적 정체 이론에서는 실제적인 집단간 갈등(realistic group conflict)의 지각이 집단간 차별에(충분조건은 될 수 있으나) 필요조건이 되지 않으며, 실험 상황에서의 단순한 범주화 자체만으로 내집단 편애(ingroup favoritism)와 같은 집단에 근거한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집단간 갈등의 지각(또는 그로 인한 적대감이나 경계심의 유발)이 비록 집단간 차별 행동에는 필요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개인의 집단 관련 신념들(group-relevant beliefs) 변화에 대한 저항 또는 신념 극화(belief polarization)<sup>2)</sup>에는 필요할 것이라고 제안한다. 특히 본 논문에 보고하는 세 개의 실험들에서는 집단간 갈등의 지각(또는 집단간 적대감이나 경계심의 유발)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변인의 하나로서, 집단간 의견 대립(opinion contrast) 또는 내/외집단 신념 차이(belief difference)의 정도를 조작하였다. 내집단 구성원들은 대부분 자신의 신념을 지지하는 반면 외집단 구성원들은 대부분 자신의 신념을 반대하는 상황(내/외집단으로부터의 차별적 신념 지지 조건)에서 자신의 신념이 공격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위협받은 신념의 가치를(외집단과 비교하여) 유지 또는 상승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며(cf. Abelson, 1986), 이러한 노력은 설득에 대한 저항(resistance to persuasion) 또는 원래 지니고 있던 신념들의 강화(strengthening)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태도 변화(attitude change) 연구들에서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어떠한 실험 조건에서 신념의 변화가 덜 일어나는가에 관심을 두었다. 잘 변하는 신념들보다는 잘 변하지 않는 신념들이 한 개인의 정체(identity)를 안정되게 유지시키는데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때, 이와 같이 근본적으로 잘 변하지

않으려는 속성이 있는 신념들(예: 개인의 중요한 집단 정체와 관련된 신념들)에 관한 연구 및 신념 변화에 대한 저항을 가져 올 수 있는 조건들에 관한 연구는 태도 또는 신념 연구를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 보고하는 세 개의 실험들 중 두 개는 미국 Yale 대학교 학부생들 중 자연과학(natural science)을 전공하는 학생들과 인문학(humanities)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전공(majors) 관련 신념들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고, 나머지 한 개는 Yale 대학교 학부생들 중 여학생이면서 여권운동을 찬성하는 사람들(feminists)과 남학생이면서 여권운동을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non-feminists)의 여권운동(feminism) 관련 신념들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 실 험 1

실험 1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개인의 중요한 집단 정체(group identity)와 관련된(relevant) 신념들이 집단 정체와 관련되지 않은(irrelevant) 신념들보다 변화에 대한 저항이 더 강할 것이라는 예언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었다. 아울러 이 실험에서는 내/외집단으로부터의 신념 지지율이 개인의 신념 변화에 대한 저항에서로 반대되는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즉, 내집단으로부터의 지지율이 증가할수록 신념 변화에 대한 저항이 더 커지는 반면, 외집단으로부터의 신념 지지율 증가는 신념 저항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후자가 시사할 수 있는 내용은 외집단으로부터의 지지(support)보다는 외집단으로부터의 반대(opposition)가 클수록 신념 저항을 더 크게 일으킬 것이라는 점이다.

## 방 법

### 피험자

Yale 대학교 학부과정 심리학 개론을 수강하는 피험자 모집단(subject pool)에서 24명의 자연과학 전공생들과 24명의 인문학 전공생들이 실험에 참가하였다. 자연과학 전공생 한 명과 인문학 전공생 한 명씩을 같은 실험 시간에 배정하였으나, 이들은 두 개의 작은 실험실에 따로 마련된 두 대의 컴퓨터 앞에 각각 앉아 개별적으로 응답하도록 했다. 실험이 끝난 후 실험자(필

<sup>2)</sup> 본 논문에서는 신념의 극화(polarization)는 신념의 변화에 대한 저항(resistance to change)의 부분집합으로서, 신념의 변화에 대한 저항이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난 것이 신념 극화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자)는 피험자들에게 실험의 목적이 쓰여 있는 설명 용지(debriefing sheet)와 함께 학점에 추가되는 카드를 주었다.

#### 신념 문항들

학생들의 전공(자연과학대 인문학)과 관련된다고 생각되는 문항들과 관련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문항들 각각 두 쌍씩을 Yale 대학교 심리학과 대학원 학생들(사회심리학 전공 박사과정 학생들) 두 명이 의논하여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 전공 관련 문항들

- 1a. 직관(intuition)이 지식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인문학 성향)
- b. 체계적 관찰(systematic observation)이 지식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자연과학 성향)
- 2a. 인간은 자유의지(free will)를 가지고 있다. (인문학 성향)
- b. 모든 행동은 결정되는(determined) 것이다. (자연과학 성향)

#### 전공 비관련 문항들

- 3a. Yale에 4학년 종합시험(senior comprehensive examination)이 있어야 한다.
- b. Yale에 4학년 종합시험이 있어서는 안된다.
- 4a. 학부과정에서는 엄격하게 학과 구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 b. 학생들의 전공은 학부과정 시작할 때부터 세분화되어야 한다.

위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각 문항은 두 개의 상반되는 신념들을 나타내는 문장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여기서 신념 문항의 전공 관련성(즉, 집단정체 관련성) 여부를 첫번째 독립 변인으로 다루었다.

#### 실험 절차

각 피험자가 컴퓨터 앞에 앉은 후 실험자는 피험자의 전공 분야(자연과학 또는 인문학)를 물어 컴퓨터에 입력시켰다. 이 단계에서 피험자의 집단정체를 두드러지게(salient) 만듦과 동시에 자기 집단이 어느 집단과 비교되는지를 피험자가 깨닫도록 하였다. 그 후 컴퓨터의 숫자 키(key)를 사용하여 응답하는 요령을 설명해 주고 나서, 이 때 부터는 계속 피험자 혼자서 컴퓨터 화면에 제시되는 지시문을 따라 응답하도록 되어 있었

다.

피험자가 "enter"키를 누름과 동시에 실험이 시작되면, 화면에는 먼저 실험의 목적과 절차를 간단히 설명하는 지시문이 나왔다. 실험의 목적은 "Yale 학부생들이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 보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 다음 화면에는 각 신념 문항에 응답하는 요령을 설명하는 지시문(화면의 위쪽)과 함께, 연습 문항과 척도(화면의 아래쪽)가 제시되었다. 구체적으로, 두 개의 상반되는 신념을 나타내는 문장들 중 어느 것이 피험자의 신념에 더 가까운지를 1부터 10까지의 척도 점수들 중 하나로 응답하되, 그 방법은 1부터 10까지의 컴퓨터 숫자 키들 중 하나를(10일 경우는 1과 0을 차례로) 눌러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때, 두 개의 상반되는 신념을 나타내는 문장들은 각각 척도 위의 양쪽(1과 10) 끝부분에 서술되어 있었으며, 척도의 중간(5와 6 사이)에서 양끝으로 갈수록 그 쪽의 신념 문장에 더 강하게 동의함을 의미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하여 두 개의 연습문항을 마친 후, 피험자들은 그 다음 화면에서 실험 절차를 더 자세히 기술한 추가 지시문을 하나 더 읽고 나서 모두 네 부분(four sections)으로 이루어진 본 실험을 시작하였다.

본 실험의 네 부분 하나하나가 각각 한 쌍씩의 신념 문항에 관한 것이었다. 각 부분(section)마다 먼저 (1) 연습문항에서와 같은 형식으로 상반되는 두 신념 문장 중 어느 쪽이 피험자 자신의 의견에 더 가까운지를 10점척도에 응답하게 하여 피험자의 최초 신념 점수(initial belief score)를 얻은 다음, (2) 다른 자연과학 전공생들 및 인문학 전공생들의 응답 분포들(실험 조건에 따라 거짓으로 그런 것)을 보여 주었다. 이 거짓 응답 분포들(false distributions)이 두번째 독립변인으로서, 내집단과 외집단의 신념 지지율을 조작(manipulate)한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각 문항마다 피험자들이 자신의 신념을 표현한 직후 다음과 같은 네 종류의 분포들 중 하나가 제시되었다: (1) 90%의 내집단 구성원들과 10%의 외집단 구성원들이 피험자 자신의 응답과 같은 방향의 응답을 보이는 분포(高 차별적 지지 조건), (2) 90%의 내집단 구성원들과 70%의 외집단 구성원들이 피험자 자신의 응답과 같은 방향의 응답을 보이는 분포(低 차별적 지지 조건), (3) 20%의 내집단 및 외집단 구성원들이 피험자 자신의 응답과 같은 방향의 응답을 보이는 분포(최소 지지 조건), 그

리고 (4) 80%의 내집단 및 외집단 구성원들이 피험자 자신의 응답과 같은 방향의 응답을 보이는 분포(전반적 지지 조건).

위와 같은 네 종류의 분포 조건들 중 앞의 두 조건에서는, 피험자들이 대부분 자기가 속한 전공 집단의 고정관념(stereotype)에 일치하는 응답을 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자연과학 전공생과 인문학 전공생들의 전형적인 응답(stereotypical answers)을 기준으로 한 분포들을 제시하였다. 즉, 조작된 분포들이 그럴듯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高 차별적 지지 조건에서는 90%의 자연과학 전공생들이 체계적 관찰(systematic observation)과 결정론(determinism)을 지지하며 90%의 인문학 전공생들이 여기 대비되는 직관(intuition)과 자유의지(free will)를 지지하는 분포들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低 차별적 지지 조건에서는, 자연과학 전공 피험자들에게는 자연과학 전공생(90%)과 인문학 전공생(70%)이 모두 직관보다는 체계적 관찰을, 그리고 자유의지보다는 결정론을 더 지지하는 분포를 보여 주었으며, 인문학 전공 피험자들에게는 인문학 전공생(90%)과 자연과학 전공생(70%)이 모두 체계적 관찰보다는 직관을, 그리고 결정론보다는 자유의지를 더 지지하는 분포를 보여 주었다. 이와 같이 각 전공집단의 전형적인 응답을 염두에 두고 조작한 분포들은(그렇듯하게 느껴질 가능성이 많다는 장점이 있는 대신) 각 집단의 고정관념과 반대되는 응답을 한 피험자들에게는 그 분포들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한 “오답자(wrong answerers)”들에게는 첫번째 조건의 분포들은 10%의 내집단 구성원과 90%의 외집단 구성원이 자기를 지지하는 것으로 이해될 것이다. 이와 같은 분포들의 의미 변화도 결과 분석에 반영하였다(결과 참조). 한편, 세번째와 네번째 분포 조건들(최소 지지 조건과 전반적 지지 조건)에서는 전적으로 피험자들의 응답에 근거하여 분포들을 제시하였다.

피험자들이 자연과학 전공생들의 신념 분포와 인문학 전공생들의 신념 분포를 한눈에 비교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두 분포를 한 화면에 수직으로 나란히 제시하였다. 분포의 모양은 20개의 “×” 표시를 각 실험 조건에 따라 10점 척도의 왼쪽(1부터 5까지)과 오른쪽(6부터 10까지)에 적절히 나누어 그렸다. 예를 들어, 90%의 내집단과 10%의 외집단 지지율을 나타내는 분포들은, 내집단 분포에서는 18개의 점을 전형적인 내집단 응답

쪽에, 2개의 점을 그 반대쪽에 그렸으며, 외집단 분포에서는 18개의 점을 전형적인 외집단 응답 쪽에, 2개의 점을 그 반대쪽에 그렸다.

지금까지 설명한 네 종류의 분포 조건들을 네 쌍의 신념 문항들과 한번씩 고루 짝지워지도록 하여 네 종류의 제시 형식(format)을 만든 다음, 여섯 명씩의 자연과학 전공생들과 인문학 전공생들이 같은 제시 형식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각 문항마다 내/외집단의 신념 분포 제시후에는 피험자 자신의 의견을 반박(attack)하는 글(communication)이 화면에 나타나도록 하였다. 그 글을 읽은 후 피험자가 “enter”키를 다시 한 번 치면 그 문항에 대한 피험자의 의견을 처음과 같은 요령으로 다시 한 번 물었다.

#### 종속 변인

각 문항에 대해 (1) 피험자의 최초 신념 점수와 (2) 내/외집단의 신념 지지율 분포 및 피험자 자신의 신념을 반박하는 글(attack communication)을 읽은 후의 신념 점수 간의 차이를 주종속변인으로 분석하였다. 차이 점수를 구할 때 반박하는 글의 주장 쪽으로의 신념 변화가 “-” 부호를, 자기 원래 의견 쪽으로의 신념 강화가 “+” 부호를 갖도록 계산하였다.

#### 결과 및 논의

##### 최소 지지 조건과 전반적 지지 조건에서의 전공 관련/비관련 신념들의 변화 정도

내/외집단으로부터의 신념 지지율(20% 또는 80%)과 신념 문항의 전공 관련성 여부에 따른 자연과학 전공생들 및 인문학 전공생들의 평균 신념 변화 점수가 표 1에 나와 있다. 표 1의 평균치들에 대한 변량분석(analysis of variance) 결과, 세 개의 효과가 유의미했다: 문항의 전공 관련성 여부의 주효과, 신념 지지율의 주효과, 및 이 두 변인 간의 상호작용 효과.

예상했던 대로, 전공 관련 문항( $M=-0.42$ )이 전공 비관련 문항( $M=-1.46$ )보다 신념 변화에 대한 저항을 더 크게 보였다,  $F(1, 44)=14.60, p<.001$ . 그리고 80%의 신념 지지율( $M=-0.31$ )이 20%의 지지율( $M=-1.56$ )보다 신념 변화에 대한 저항을 더 많이 가져왔다,  $F(1, 44)=18.75, p<.001$ . 더욱 중요한 결과는, 전공 관련 신념들이(20%의 지지율에서  $M=-0.67$ ; 80%의 지지율에서  $M=-0.16$ ) 전공 비관련 신념

〈표 1〉 신념 문항의 전공 관련성 여부와 내/외집단으로부터의 20% 및 80% 신념 지지율에 따른 자연과학 전공생들과 인문학 전공생들의 평균 신념 변화 점수

신념 문항의 전공 관련성	내/외집단으로부터의 신념 지지율	
	20%	80%
<b>자연과학 전공생들</b>		
전공 관련 문항	-0.58	-0.08
전공 비관련 문항	-1.83	-0.33
<b>인문학 전공생들</b>		
전공 관련 문항	-0.75	-0.25
전공 비관련 문항	-3.08	-0.58

주) 신념 변화 점수들은 각 신념 문항에서 피험자들이 10점 척도(1점과 10점 쪽으로 갈수록 서로 대비되는 두 신념 문장에 각각 강하게 동의함을 나타냄) 점수로 표현한 최초 신념 점수와 이 신념을 공격하는 글을 읽고 난 후의 신념 점수 간 차이를 구한 것임. “-”쪽의 점수가 클수록 신념 변화를 더 많이 일으킨 것임.

들보다(20%의 지지율에서  $M=-2.46$ ; 80%의 지지율에서  $M=-0.46$ ) 신념 지지율의 대소 여부의 영향을 덜 받으며 전반적으로 더 잘 변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는 점이다,  $F(1, 44)=6.75, p<.05$ . 그림 1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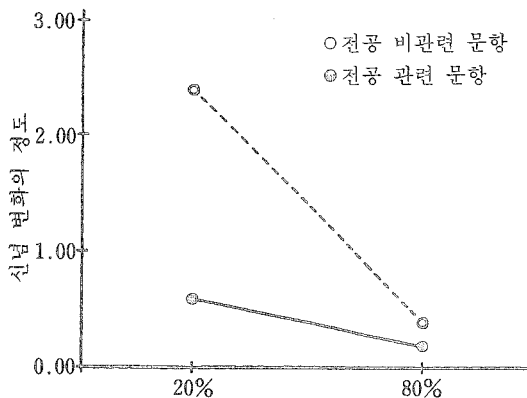


그림 1. 신념 문항의 전공 관련성 여부와 내/외집단으로부터의 20% 및 80% 신념 지지율이 자연과학 전공생들과 인문학 전공생들의 신념 변화에 미치는 효과.

분명히 드러나듯이, 이러한 상호작용 효과는 이 실험의 첫번째 예언을 잘 지지하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피험자들 전공의 주효과도 어느정도 있었다; 즉, 자연과학 전공생들( $M=-0.71$ )이 인문학 전공생들( $M=-1.17$ )보다 신념 변화를 약간 덜 일으키는 경향이 있었다,  $F(1, 44)=2.83, p<.10$ .

### 내/외집단으로부터의 신념 지지율을 근거로 한 신념 저항의 예언: 중다 회귀(multiple regression)의 결과

앞서 언급했듯이 피험자의 응답이 자기 전공 집단의 전형적인 응답과 반대되는 경우에는 실험적으로 조작한 분포들의 의미가 달라지게 되므로, 이 실험의 자료 전체에 변량분석 방법을 적용하기는 곤란하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분포들의 의미 변화까지를 모두 다루기 위해, 내/외집단 신념 지지율이 신념 저항을 예언하는데 어느 정도 효율적인지를 알아 보는 중다 회귀 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해 보았다. 그 결과가 표 2에 나와 있다.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내집단 지지율은 피험자의 신념 저항을 예언하는데 대체로 긍정적인(positive) 영향을 준 반면, 외집단 지지율은 전공 관련 신념의 저항에 부정적인(negative) 영향을 주는 경향이 있었다. 비록 회귀 계수들(regression coefficients)의 통계적 유의미도 수준은 높지 않았으나, 결과의 방향은 대체로 예언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집단정체(즉, 전공집단) 관련 신념들이 집단정체 비관련 신념들보다 더 설득되지 않는 경향이 있었으며, 내/외집단 신념 지지율의 영향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외집단으로부터의 지지는 신념의 변화에 대한 저항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외집단으로부터의 지지가 아닌 반박이 오히려 신념 저항(belief resistance)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 실 험 2

실험 2의 기본 목적과 설계는 실험 1과 거의 비슷했으나, 여기서는 특히 내집단과 외집단으로부터의 신념 지지율의 차이가 심할 때 개인의 집단정체(전공집단) 관련 신념들이 변화에 더욱 크게 저항할 것이라는 가설

<표 2> 내/외집단으로부터의 신념 지지율이 신념 변화에 대한 저항을 예언하는 정도(중다 회귀 계수 : 실험 1)

신념 문항들	예언 변인들(predictors)	
	내집단 지지율	외집단 지지율
<u>전공 관련 문항들</u>		
1. 직관(intuition) 대 체계적 관찰(observation)	0.0051 (.248)	-0.0019 (.699)
2. 자유 의지(free will) 대 결정론(determinism)	0.0161** (.004)	-0.0059 (.259)
<u>전공 비관련 문항들</u>		
3. 4학년 종합시험 (comprehensive exam)	0.0219* (.021)	0.0251* (.013)
4. 학부 전공의 세분화 (specification of majors)	0.0099 (.076)	0.0060 (.275)

주) 문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나와 있음. 회귀 계수들은 표준화되지 않은(unstandardized) 계수들임. 괄호 안의 수치는 각 회귀 계수의 통계적 유의미도 수준임. \*p<.05. \*\*p<.01.

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내/외집단 신념 지지율의 차이가 큰 차별적(differential) 지지 조건에서는 80%의 내집단 구성원들과 20%의 외집단 구성원들이 피험자 자신의 신념에 동의하는 의견분포들을 보여 주었다. 이 실험조건에 대비되는 두 비교 조건에서는 80%의 내/외집단 구성원들이 공히 피험자의 의견에 동의하는 분포들을 보여 주거나(최대 지지 조건), 20%의 내/외집단 구성원들만이 피험자의 의견에 동의하는 분포들을 보여 주었다(최소 지지 조건). 이 실험에서 가장 중요한 예언은 최대 지지 조건이 차별적 지지 조건보다 전체적인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차별적 지지 조건이 집단정체 관련 신념의 변화에 대한 저항을 더 크게 일으킬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이 실험에서는 예비조사(pretest)를 거쳐 엄밀하게 선정한 12개의 신념문항들을 이용해서 실험 1의 결과들을 반복검증(replicate)하고자 하였다.

## 방 법

### 피험자

Yale대학교에 재학중인 40명의 학부생들(자연과학 전공생과 인문학 전공생들이 각각 20명씩)이 예비조사

에 참가했다. 예비조사는 본실험에 사용할 전공 관련(relevant) 신념문항들과 전공 비관련(irrelevant) 신념문항들을 엄선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이 예비조사 피험자들과 독립적으로, Yale大 학부 심리학 개론 수강생들로 이루어진 피험자 모집단(subject pool)에서 30명씩의 자연과학 전공생들과 인문학 전공생들이 본실험에 참가하였다. 본 실험 피험자들은 두 명씩(각 전공집단마다 한 명씩) 같은 실험 시간에 배정되었으나, 두 사람이 각기 따로 마련된 컴퓨터 앞에 앉아 개별적으로 응답하였다. 실험이 끝난 후 모든 피험자들은 실험 해명서(debriefing sheet)와 학점 카드를 받아 갔다.

### 신념 문항들의 선정

자연과학 전공생과 인문학 전공생들을 가장 잘 구분 지을 수 있는 신념 문항들을 고르기 위해, 20쌍의 서로 대비되는 두 신념을 나타내는 문항들로 예비조사 질문지를 구성했다. 그 중 한 쌍의 예를 들면, “직관(intuition)이 지식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신념(10점 척도의 1점 쪽)과 “체계적 관찰(systematic observation)이 지식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신념(10점 척도의 10점 쪽) 중 피험자의 신념이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를 1부터 10까지의 척도 점수들 중 하나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예비조사의 결과, 자연과학 전공생들과 인문학 전공생들 간에

유의미한 평균 차이를 보이는 문항들(전공 관련 문항들)과 그렇지 않은 문항들(전공 비관련 문항들)을 각각 여섯 문항씩 선정하여 본실험에 이용하였다. 그 중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sup>3)</sup>

전공 관련 문항들(a : 인문학 성향, b : 자연과학 성향)

- 1a. 직관(intuition)이 지식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 b. 체계적 관찰(systematic observation)이 지식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 2a. 문명의 질은 무엇보다도 예술(art)의 진보 정도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
- b. 문명의 질은 무엇보다도 과학(science)의 진보 정도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
- 3a. 어떤 방법으로도 측정(measure)할 수 없는 현상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
- b. 대부분의 현상들은 측정가능한 요소들(measurable components)로 환원(reduce)될 수 있다.

#### 전공 비관련 문항들

- 7a. 인간은 자유의지(free will)를 가지고 있다.
- b. 모든 행동은 결정되는(determined) 것이다.<sup>4)</sup>
- 8a. 대학교수의 정년 보장제(faculty tenure)는 폐지(abolish)되어야 한다.
- b. 대학교수의 정년 보장제(faculty tenure)는 유지(maintain)되어야 한다.

<sup>3)</sup> 본문에 예시되지 않은 문항들의 내용이나 각 신념 문항을 공격하는 글(attack communications)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저자에게 직접 연락하시기 바랍니다(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사회심리학 연구실).

<sup>4)</sup> 이 문항은 예비조사를 거치지 않은 실험 1에서는 전공 관련 문항으로 다루었었으나, 실험 2의 예비조사 결과 자연과학 전공생들도 인문학 전공생들과 마찬가지로 결정론(determinism)보다는 자유의지(free will) 쪽에 더 가까운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자연과학 전공생들( $M=3.53$ )이 인문학 전공생들( $M=2.50$ )보다 약간 더 결정론 쪽에 가까운 응답을 보이기는 했으나 이 두 평균치들 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9a. 우주의 어느 곳에도 E.T.와 같은 존재는 있을 수가 없다.

b. 우주의 어느 곳엔가 E.T.와 같은 존재가 있을 것임에 틀림없다.

#### 실험 절차

이 실험의 지시문들은 신념 문항의 갯수(4개 대신 12개)와 관련된 부분만을 제외하고는 실험 1의 지시문들과 똑같았다. 실험 절차도 실험 1에서와 완전히 같았고 실험의 각 부분(section)마다 컴퓨터 화면에 제시되는 자료들의 순서도 같았으나, 조작된 분포들의 종류와 제시 방법이 달랐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실험 2에서는 (1) 내/외집단으로부터의 차별적 지지(differential support) 조건(즉, 80%의 내집단 구성원과 20%의 외집단 구성원으로부터의 신념 지지), (2) 최소 지지(minimum support) 조건(즉, 20%의 내집단 및 외집단 구성원으로부터의 신념 지지), 그리고 (3) 최대 지지(maximum support) 조건(즉, 80%의 내집단 및 외집단 구성원으로부터의 신념 지지)을 나타내는 신념 분포들 중 한 조건의 분포들을 각 문항마다 제시하였다. 제시 방법은 실험 1에서와 달리 완전히 피험자의 응답을 기준으로 하였다. 즉, 피험자가 전공집단의 고정관념(stereotype)과 일치하는 응답을 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피험자 자신의 의견에 내/외집단 구성원들의 몇 %씩이 동의하는지를 보여 주었다.

이때 분포의 종류를 다양하게 함으로써 분포들의 사실성을 조금이나마 높이기 위해, 각 분포 조건들마다 2편(version)씩의 분포 모양을 만들었다. 분포들을 그런 방법도 실험 1에서와 마찬가지로 20개의 "×" 표시를 척도의 좌우에 실험 조건에 따라 적절히 나누어 그리는 방법을 이용했으므로, 같은 분포 조건마다 두 종류의 분포 모양을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분포의 다양성을 위해 실험조건 분포들 이외에 3종류의 분포조건들을 더 만들었다: 50%의 내/외집단 지지, 35%의 내집단과 65%의 외집단 지지, 및 65%의 내집단과 35%의 외집단 지지, 이와 같은 추가 분포 조건들(filler distributions)은 단지 전공 비관련 문항들과 짝지어 제시하였으며 결과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표 3 참조). 각 신념 문항에 분포 조건들을 짝지울 때는 표 3과 같은 Latin Square를 이용하였다. 여섯 종류의 제시 양식(format)마다 5명씩의 자연과학 전공



〈표 3〉 신념 분포 조건들과 전공 관련/비관련 문항들을 짝지운 방식(실험 2)

신념 문항의 전공 관련성	본실험에서의 문항 번호	분포조건들의 제시 양식(format)					
		1	2	3	4	5	6
전공 관련 문항	1	a	c	b	d	f	e
	2	b	a	c	e	d	f
	3	c	b	a	f	e	d
	4	d	f	e	a	c	b
	5	e	d	f	b	a	c
	6	f	e	d	c	b	a
전공 비관련 문항	7	a	c	b	g	i	h
	8	b	a	c	h	g	i
	9	c	b	a	i	h	g
	10	g	i	h	a	c	b
	11	h	g	i	b	a	c
	12	i	h	g	c	b	a

주) a & d : 내/외집단 구성원의 80%가 지지. b & e : 내/외집단 구성원의 20%가 지지. c & f : 내집단 구성원의 80%와 외집단 구성원의 20%가 지지. g : 내/외집단 구성원의 50%가 지지. h : 내집단 구성원의 35%와 외집단 구성원의 65%가 지지. i : 내집단 구성원의 65%와 외집단 구성원의 35%가 지지. 고딕체로 된 a, b, 및 c 조건들에 해당하는 자료들만을 주요 결과 분석에 이용함.

생과 인문학 전공생들이 응답하도록 했다.

#### 종속 변인 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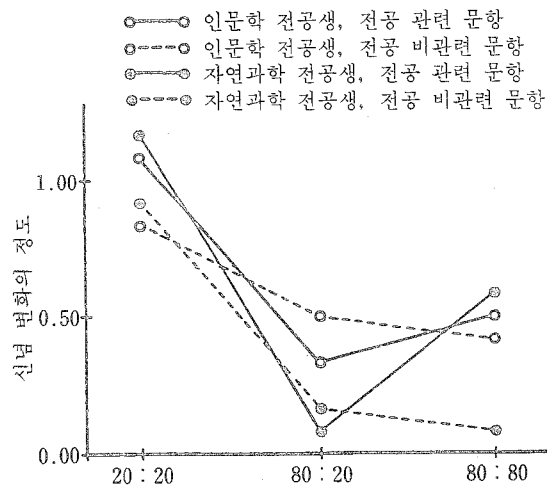
실험 1에서와 마찬가지로, 각 신념 문항마다 자신의 의견을 공격하는 글(communication)을 읽기 전과 후의 신념 점수들 간 차이를 구한 것이 개인의 신념 변화 점수로서 분석에 이용되었다. 이때 역시 실험 1에서와 마찬가지로 신념을 공격하는 글의 내용 쪽으로의 신념 변화가 “-” 부호를 갖도록 신념 변화 점수를 계산하였다.

#### 결과 및 논의

##### 분포 조건들에 따른 신념 변화 점수

신념 문항의 전공 관련성 여부와 내/외집단으로부터의 신념 지지율의 종류에 따른 신념 변화 점수들의 평균치가 그림 2에 요약되어 있다.

그림 2의 평균 신념 변화 점수들에 대한 전체 변량분석의 결과에서는 분포들의 주효과만이 유의미하게 나타



내/외부집단으로부터의 신념 지지율(내집단 : 외집단)

그림 2. 신념 문항의 전공 관련성 여부와 내/외집단으로부터의 최소(20% : 20%), 최대(80% : 80%), 및 차별적(80% : 20%) 신념 지지율이 자연과학 전공생들과 인문학 전공생들의 신념 변화에 미치는 효과.

났다. 즉, 이 실험에서 예언했던 것처럼 차별적 지지 조건( $M=-0.24$ )이 신념 변화에 대한 저항을 가장 크게 일으켰고, 최대 지지 조건( $M=-0.37$ )이 중간 정도의 저항을 가져왔으며, 최소 지지 조건( $M=-0.97$ )이 저항을 가장 적게(신념 변화를 가장 많이) 일으켰다,  $F(2, 116)=16.11, p<.001$ .

이 실험의 예언을 좀더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 80:20(차별적 지지) 조건과 80:80(최대 지지) 조건의 자료만을 따로 변량분석해 보았다. 여기서는 전공집단의 주효과가 어느정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자연과학 전공생들( $M=-0.19$ )이 인문학 전공생들( $M=-0.42$ )보다 자신의 신념을 약간 더 고수하는 경향이 있었다,  $F(1, 58)=3.20, p<.10$ . 보다 중요한 결과는 두 분포 조건들(80:20 및 80:80)과 신념 문항의 전공 관련성간 상호작용 효과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나 그 경향은 이 실험의 예언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나왔다. 즉, 전공 관련 신념 문항에서는 차별적 지지 조건( $M=-0.18$ )이 최대 지지 조건( $M=-0.52$ )보다(전반적인 지지 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념 변화에 대한 저항을 더 많이 일으킨 반면, 전공 비관련 문항에서는 이 두 분포조건에서의 신념 변화 정도가 거의 비슷했다( $M_s=-0.30$  및  $-0.22$ ),  $F(1, 58)=2.50, p<.15$ .

그러나 이와 같이 예언에 일치되는 결과들이 표 3의 d, e, 및 f 조건의 자료들에 대한 변량분석에서 반복검증되지는 않았다. 여기서는 단지 분포 조건들의 주효과만이 유의미했으며, 그 경향도 앞의 분석 결과와 조금 달랐다; 즉, 이번에는 최대 지지 조건( $M=0.10$ )이 가장 큰 신념 저항(신념 강화)을 가져 왔으며, 차별적 지지 조건( $M=-0.25$ )이 중간 정도의 저항을 일으켰고, 최소 지지 조건( $M=-1.22$ )이 가장 적은 신념 저항(가장 큰 신념 변화)을 가져 왔다,  $F(2, 116)=16.48, p<.001$ . 두 편(version)의 같은 분포 조건들(표 3의 "a, b, 및 c"와 "d, e, 및 f")이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은 결과들이 확고부동(robust)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 실험에서 중요한 점은 내/외집단으로부터의 차별적 지지 조건이 최대 지지 조건보다 전반적인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전공 관련 신념의 변화에 대한 저항을 더 많이 일으킬 수(can) 있었다는 점이다.

내/외집단으로부터의 신념 지지율을 근거로 한 신념 저항의 예언 : 중다 회귀(multiple regression)의 결과 이 실험의 자료 전체를 이용하여 내/외집단으로부터의 신념 지지율이 각 신념의 변화에 대한 저항을 어느 정도 예언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중다 회귀 계수들(multiple regression coefficients)을 구해 보았다. 그 결과가 표 4에 나와 있다.

표 4의 회귀 계수들을 살펴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계수들의 갯수는 많지 않지만, 대체로 내집단으로부터의 지지는 신념 저항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 반면, 외집단으로부터의 지지는 신념 저항에 부정적인 효과를 주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외집단의 지지 아닌 외집단으로부터의 공격(attack) 또는 위협(threat)이 신념의 변화에 대한 저항(resistance to change) 또는 신념 극화(belief polarization)를 가져올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결과로서, 이 논문의 주요 가설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 실 험 3

실험 3의 목적은 실험 1과 2의 주요 결과들이 학생들의 전공 관련 신념이 아닌 다른 집단정체 관련 신념들을 이용한 실험에서도 반복검증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즉, 내/외집단으로부터의 차별적 신념 지지율이 신념의 변화에 대한 저항을 일으키는 현상이 일반화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으로 이 실험에서는 Yale대 학교 학부생들 중 여학생이면서 女權運動을 지지하는 집단(female feminists)과 남학생이면서 여권운동을 지지하지 않는 집단(male non-feminists)<sup>5)</sup> 구성원들의 여권운동(feminism) 관련 신념들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여권운동가들(feminists)과 非여권운동가들(non

<sup>5)</sup> 이 실험에서 "여학생 대 남학생" 변인과 "여권운동가 대 비여권운동가" 집단 변인들을 분리하지 않은 이유는 (1) 보다 현실적인 집단간 갈등(intergroup conflict)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은 두 집단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자 하였고, (2) 두 집단 간의 신념의 차이가 최대한으로 뚜렷하게 드러날 수 있는 집단들에 연구의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표 4> 내/외집단으로부터의 신념 지지율이 신념 변화에 대한 저항을 예언하는 정도(중다 회귀 계수 : 실험 2)

신념 문항들	예언 변인들(predictors)	
	내집단 지지율	외집단 지지율
<u>전공 관련 문항들</u>		
1. 직관(intuition) 대 체계적 관찰(observation)	0.0117* (.044)	0.0042 (.464)
2. 문명 평가의 기준으로서의 예술(art)/과학(science)	0.0133* (.022)	-0.0042 (.465)
3. 현상들의 측정 가능성 (measurability)	0.0108 (.131)	-0.0058 (.413)
4. 컴퓨터 교육의 중요성 (computer education)	0.0133 (.078)	0.0075 (.316)
5. 검증 가능한 지식 (verifiable knowledge)	0.0283*** (.001)	-0.0108 (.121)
6. 예술 또는 과학에의 연방정부 지원	0.0167** (.010)	0.0100 (.113)
<u>전공 비관련 문항들</u>		
7. 자유 의지(free will) 대 결정론(determinism)	0.0002 (.974)	-0.0019 (.762)
8. 4학년 종합시험 (comprehensive exam)	0.0192* (.026)	-0.0058 (.488)
9. 학부 전공의 세분화 (specification of majors)	0.0219** (.003)	-0.0085 (.217)
10. 교수의 정년 보장제 (faculty tenure)	0.0217* (.017)	0.0100 (.260)
11. 시사문제에의 관심 또는 자기 역할에의 충실	0.0067 (.208)	-0.0083 (.117)
12. E.T.의 존재 또는 비존재 (presence or absence)	0.0092 (.053)	-0.0008 (.858)

주) 문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나와 있음. 회귀 계수들은 표준화되지 않은(unstandardized) 계수들임. 괄호 안의 수치는 각 회귀 계수의 통계적 유의미도 수준임. \*p<.05. \*\*p<.01. \*\*\*p<.001.

-feminists)이 서로 달리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되는 여권운동 관련 신념 문항들(즉, 집단정체 관련 신념 문항들) 4쌍을 새로 만들고, 여권운동 비관련 문항들 8쌍을(4쌍은 여권운동 관련 문항들과의 비교를 위해, 나머지 4쌍은 단순히 문항들과 의견분포들의 다양화를 위해) 실험 2에서 사용한 문항들 중에서 골랐다.

실험 절차는 실험 2와 거의 같았으나, 단지 여기서는 (1) 최소지지 조건(20%의 내/외집단 지지)을 제외시켰으며, (2) 여권운동 관련 문항들에 대한 내/외집단의 의견분포 제시는 피험자 자신의 응답을 근거로 하지 않고 실험 1에서처럼 두 집단(여학생 여권운동가들 집단과 남학생 비여권운동가들 집단)의 고정관념적(stereotypical) 응답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예언들은 실험 2에서와 같았다. 첫째로, 신념 문항이 피험자들의 집단 정체(즉, 여학생 여권운동가 또는 남학생 비여권운동가)와 관련이 있는 경우, 차별적 지지 조건(80%의 내집단 구성원과 20%의 외집단 구성원으로부터의 지지)이 최대 지지 조건(80%의 내/외집단 구성원으로부터의 지지)보다 절대적인 지지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념 변화에 대한 저항을 더 많이 일으킬 것이라는 예언이다. 둘째로, 내집단으로부터의 지지는 신념 저항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반면, 외집단으로부터의 지지는 신념 저항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는 예언이다.

## 방법

### 피험자

Yale대학교에서 심리학 개론을 수강하고 있는 학부생들(subject pool) 중, 여학생이면서 여권운동을 지지하는 사람들 24명과 남학생이면서 여권운동을 지지 않는 사람들 24명이 이 실험에 참가하였다. 두 명씩의 피험자들(각 집단에서 한 명씩)이 같은 실험시간에 배치되었으나 이들은 두 실험실에 따로 마련된 컴퓨터 앞에 각각 앉아 개별적으로 응답하였다. 모든 피험자들은 참가 후 실험 해명서(debriefing sheet)와 학점 카드를 받았다.

### 신념 문항들

이 실험을 위해 새로 만든 4개의 여권운동(feminism) 관련 문항들<sup>1)</sup>은 다음과 같았다(a: 비여권운동 성향의 문항, b: 여권운동 성향의 문항.)

- 1a. 여자는 신체적 힘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일들을 모두 남자처럼 잘 할 수는 없다.
- b. 여자도 신체적 힘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일들을 모두 남자처럼 잘 할 수가 있다.
- 2a. 결혼한 남녀가 가사노동의 분담을 전통적인(traditional) 역할대로 한다 해도 남편과 아내가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
- b. 결혼한 남녀가 가사노동의 분담을 전통적인 역할대로 하는 한 남편과 아내가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없다.

<sup>1)</sup> 여권운동 비판편 문항 8개는 실험 2에서 사용한 것들 중에서 골랐으므로 여기서 다시 예시하지는 않았다.

3a. 여성의 정치적·경제적 세력(political and economic powers)이 많이 향상되었다.

b. 여성의 정치적·경제적 세력이 아직도 많이 향상되지 않았다.

4a. 서로 다르게 규정된 남녀의 역할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선천적인 性差(inherent sex differences)가 있다.

b. 서로 다르게 규정된 남녀의 역할을 정당화시킬 만한 선천적인 性差는 없다.

### 실험 절차

이 실험의 지시문은 실험 2의 것과 거의 같았으나, 단지 "Yale 학부생들의 신념"을 알아보고자 한다는 문구를 "여성 여권운동가들(female feminists)과 남성 비여권 운동가들(male non-feminists)의 신념"을 알아보고자 한다는 문구로 대체하였다. 본 실험은 12부분(sections)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각 부분마다 먼저 12쌍들 중 한 쌍의 대비되는 신념문항들(4개의 여권운동 관련 문항과 8개의 비판편 문항)을 10점척도(양끝으로 갈수록 각 문장에 더 강하게 동의함을 의미함)와 함께 화면에 제시하여 피험자 자신의 의견이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를 물었다.

각 피험자가 컴퓨터 숫자 키(key)들 중 하나를 눌러 각 신념문항에 대한 자기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 직후 (1) 그 신념문항에 대한 다른 여성 여권운동가들과 남성 비여권운동가들의 의견분포들(실험조건에 따라 거짓으로 조작된 것들)과 (2) 피험자 자신의 의견을 반박하는 내용의 글(communication)을 신빙성있는 저자(source)와 함께 컴퓨터 화면에 제시 하였다. 조작된 거짓 의견분포들은 (1) 80%의 내/외집단 구성원들이 모두 피험자 자신의 응답과 같은 방향의 응답을 보이는 분포, 또는 (2) 80%의 내집단 구성원들과 20%의 외집단 구성원들이 피험자의 의견에 동의함을 나타내는 분포들 중 하나였다. 분포들을 다양하게 하여 거짓 분포임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각 분포 조건마다 두 편(version)의 분포들을 만들었으며, 4개의 비판편 문항들을 기타 분포들과 함께 첨가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다(표 5 참조). 문항들을 분포조건들과 짝지운 방법은 표 5에 나와 있다.

내/외집단의 신념 분포들과 피험자 자신의 신념을 반박하는 내용의 글을 읽은 후, 피험자들이 같은 신념 문항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앞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표 5> 신념 분포 조건들과 여권운동 관련/비관련 문항들을 짝지운 방식(실험 3)

신념 문항의 여권운동 관련성	문항번호	분포조건들의 제시 양식(format)			
		1	2	3	4
여권운동 관련 문항	1	a <sub>1</sub>	b <sub>1</sub>	a <sub>2</sub>	b <sub>2</sub>
	2	b <sub>1</sub>	a <sub>1</sub>	b <sub>2</sub>	a <sub>2</sub>
	3	a <sub>2</sub>	b <sub>2</sub>	a <sub>1</sub>	b <sub>1</sub>
	4	b <sub>2</sub>	a <sub>2</sub>	b <sub>1</sub>	a <sub>1</sub>
여권운동 비관련 문항	5	a <sub>1</sub>	b <sub>1</sub>	a <sub>2</sub>	b <sub>2</sub>
	6	b <sub>1</sub>	a <sub>1</sub>	b <sub>2</sub>	a <sub>2</sub>
	7	a <sub>2</sub>	b <sub>2</sub>	a <sub>1</sub>	b <sub>1</sub>
	8	b <sub>2</sub>	a <sub>2</sub>	b <sub>1</sub>	a <sub>1</sub>
여권운동 비관련 문항 (추가)	9	c	f	e	d
	10	d	c	f	e
	11	e	d	c	f
	12	f	e	d	c

주) a<sub>1</sub> & a<sub>2</sub>: 내/외집단 구성원의 80%가 지지. b<sub>1</sub> & b<sub>2</sub>: 내집단 구성원의 80%와 외집단 구성원의 20%가 지지. c: 내/외집단 구성원의 50%가 지지. d: 내집단 구성원 65%와 외집단 구성원의 35%가 지지. e: 내집단 구성원의 35%와 외집단 구성원의 65%가 지지. f: 내집단 구성원의 45%와 외집단 구성원의 55%가 지지. 문항번호 1부터 8까지의 자료들(a<sub>1</sub>, b<sub>1</sub>, a<sub>2</sub> 및 b<sub>2</sub>분포 조건들)만을 주요 결과 분석에 이용함.

한 번 표현하도록 했다.

#### 실험 설계

이 실험의 기본 설계는 2(피험자의 집단정체)×2(신념문항의 집단정체 관련성)×2(내/외집단으로부터의 신념 지지율 분포) 요인 설계(factorial design)였다. 집단정체(group identity) 변인만 피험자간 변인(between-subjects variable)이었으며, 나머지 두 변인은 피험자내 변인(within-subjects variable)이었다. 즉, 두 집단의 피험자들은 서로 독립적이었으며, 각 집단 내의 24명씩의 피험자들은 표 5와 같은 방법으로 분포 조건들과 짝지워진 12문항들에 모두 응답하도록 되어 있었다. 각 제시양식(format)마다 각 집단에서 6명씩의 피험자들이 응답하였다.

#### 결과 및 논의

##### 고정관념에 일치되는 응답을 한 피험자들의 신념 변화 점수

여권운동 관련 문항들에서 피험자들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의 고정관념(stereotype)에 일치하는 응답을

한 피험자들을 “정답자들(correct answers)”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내/외집단으로부터의 신념 지지율을 보여준 의견 분포들의 의미가 이 정답자들과 오답자들(wrong answers)-고정관념과 반대되는 응답을 한 피험자들-에게 서로 달리 받아들여질 것이기 때문에, 정답자들의 자료와 오답자들의 자료를 분리해서 분석하였다. 표 6의 평균치들은 신념문항의 집단정체 관련성과 내/외집단으로부터의 신념 지지율에 따른 정답자들의 신념변화 점수들을 나타낸다.

서로 다른 신념문항과 짝지워진 두 편의 같은 분포조건들에 동일한 피험자들이 응답을 하였으므로(표 5 참조), 두 편의 분포조건들에 관한 자료들을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표 6의 평균치들 중 제 1편(version)의 분포조건들에 대한 자료(표 6의 각 실험조건의 두 평균치들 중 첫번째 평균치들)의 변량분석에서는,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여성 여권운동가들(M=-0.20)이 남성 비여권운동가들(M=-0.48)보다 자신들의 신념을 약간 더 고수하는 경향을 보였다, F(1, 46)=2.68, p<.15. 뿐만 아니라 집단정체 관련

〈표 6〉 신념 문항의 여권운동 관련성 여부와 내/외집단으로부터의 최대(80% : 80%) 및 차별적(80% : 20%) 신념 지지율에 따른 여성 여권운동가들과 남성 비여권운동가들의 평균 신념 변화 점수(“정답자들”의 자료)

신념 문항의 전공 관련성	내/외집단으로부터의 신념 지지율	
	80% : 80% (n)	80% : 20% (n)
<b>여성 여권운동가들</b>		
여권운동 관련 문항	-0.40(15)	0.80(11)
	-0.42(12)	-0.55(11)
여권운동 비관련 문항	-0.37(24)	-0.21(24)
	-0.42(24)	-0.67(24)
<b>남성 비여권운동가들</b>		
여권운동 관련 문항	-0.33(21)	-0.75(20)
	-0.28(18)	-0.77(24)
여권운동 비관련 문항	-0.58(24)	-0.25(24)
	-0.54(24)	-0.75(24)

주) 각 실험조건 칸(cell)마다 첫번째 점수는 제 1편(first version)의 분포 조건들(표 5에서 a<sub>1</sub> 또는 b<sub>1</sub>)이 주어졌을 때의 신념 변화 점수를 나타내며, 두번째 점수는 제 2편(second version)의 분포 조건들(표 5에서 a<sub>2</sub> 또는 b<sub>2</sub>)이 주어졌을 때의 신념 변화 점수를 나타냄. 괄호 안의 수치들은 각 평균치에 기여한 피험자들의 수, 즉 각 집단의 고정관념에 일치하는 응답을 한 피험자들(“정답자들”)의 수(numbers)임. 신념 변화 점수들은 각 신념 문항에서 피험자들이 10점 척도(1점과 10점 쪽으로 갈수록 서로 대비되는 두 신념 문장에 각각 강하게 동의함을 나타냄) 점수로 표현한 최초 신념 점수와 이 신념을 공격하는 글을 읽고 난 후의 신념 점수 간 차이를 구한 것임. “-”쪽의 점수가 클수록 신념 변화를 더 많이 일으킨 것임.

문항에서는, 여성 여권운동가들은 최대 지지 조건(M=-0.40)에서보다 차별적 지지 조건(M=0.18)에서 자신들의 신념을 더 양보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으나, 남성 비여권운동가들은 최대 지지 조건(M=-0.33)에서보다 차별적 지지 조건(M=-0.75)에서 자신들의 신념을 더 양보하는 경향이 있었다, F(1, 22)=8.89, p<.01. 이와 같은 피험자 집단과 분포들 간의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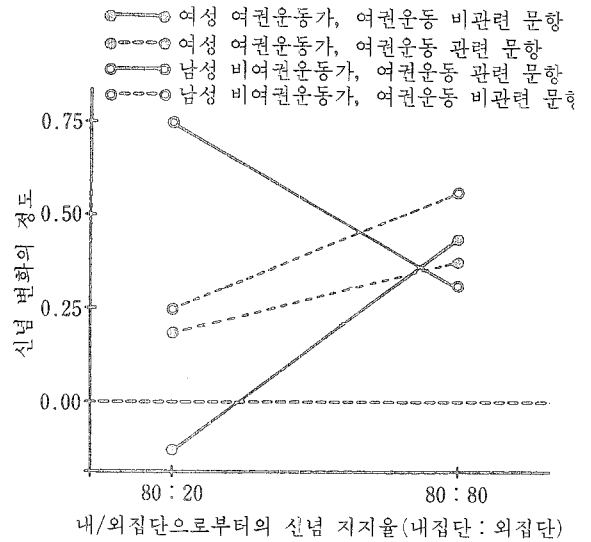


그림 3. 신념 문항의 여권운동 관련성 여부와 내/외집단으로부터의 차별적(80% : 20%) 및 최대(80% : 80%) 신념 지지율이 여성 여권운동가들과 남성 비여권운동가들의 신념 변화에 미치는 효과.

호작용 효과는 집단정체 비관련 문항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그림 3 참조). 여기서 특기할만한 점은 비여권운동가들보다 집단 정체가 비교적 더 뚜렷하다고 볼 수 있는 여권운동가들만이 최대지지 조건에서보다 차별적 지지 조건(집단간 의견대립이 큰 조건)에서 자신의 의견을 반박하는 글에 더 크게 저항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여권운동 지지 피험자들의 응답 경향은 이 실험의 첫번째 예언을 지지한다.

그러나, 표 6의 제 2편(version)의 분포조건들에 대한 자료(표 6의 각 실험조건의 두 평균치들 중 두번째 평균치들)의 변량분석에서는 단지 분포 조건들의 주요 과만이 유의미했는데, 여기서는 예언과 반대로 피험자들이 최대 지지 조건(M=-0.41)에서보다 차별적 지지 조건(M=-0.68)에서 신념을 덜 고수하는 경향을 보였다, F(1, 46)=4.65, p<.05. 그러나 집단정체 관련 문항의 경우 최대 지지 조건(M=-0.28)에서보다 차별적 지지 조건(M=-0.77)에서 신념의 변화에 대한 저항(resistance)을 덜 보였던 남성 비여권운동가들의 경향이 여성 여권운동가들에게서는 덜 심했다(최대 지지 조건에서 M=-0.42; 차별적 지지 조건에서 M=

-0.55). 이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나 제 1편(version)의 분포조건들에 대한 자료 분석 결과와 어느 정도는 맥락을 같이하는 결과로 보인다.

고정관념과 반대되는 응답을 한 피험자들의 신념 변화 점수

표 7은 “오답자들(wrong answers)”의 평균 신념 변화 점수들을 나타낸다. 이 표에서 유의할 점은 원래의 분포조건들(80% : 80% 및 80% : 20%)의 의미가 각각 (1) 최소 지지 조건(20%의 내/외집단 구성원으로부터의 지지) 및 (2) 역 차별적 지지 조건(20%의 내집단 구성원과 80%의 외집단 구성원으로부터의 지지)으로 대치되었다는 점이다. 집단정체 관련 문항들에 대

<표 7> 신념 문항의 여권운동 관련성 여부와 내/외집단으로부터의 최대(80% : 80%) 및 차별적(80% : 20%) 신념 지지율에 따른 여성 여권운동가들과 남성 비여권운동가들의 평균 신념 변화 점수(“오답자들”의 자료)

피험자들의 소속 집단	내/외집단으로부터의 신념 지지율 (Group identity)	20% : 20%(n)	20% : 80%(n)
여성 여권운동가들		-1.44(9)	-1.23(13)
		-0.83(12)	-1.77(13)
남성 비여권운동가들		-4.00(3)	-1.50(4)
		-2.00(6)	-0.50(2)

주) 각 실험조건 칸(cell)마다 첫번째 점수는 제 1편(first version)의 분포 조건들(표 5에서 a<sub>1</sub> 또는 b<sub>1</sub>)이 주어졌을 때의 신념 변화 점수를 나타내며, 두번째 점수는 제 2편(second version)의 분포 조건들(표 5에서 a<sub>2</sub> 또는 b<sub>2</sub>)이 주어졌을 때의 신념 변화 점수를 나타냄. 괄호 안의 수치들은 각 평균치에 기여한 피험자들의 수, 즉 각 집단의 고정관념에 반대되는 응답을 한 피험자들(“오답자들”)의 수(numbers)임. 신념 변화 점수들은 각 신념 문항에서 피험자들이 10점 척도(1점과 10점 쪽으로 갈수록 서로 대비되는 두 신념 문장에 각각 강하게 동의함을 나타냄) 점수로 표현한 최초 신념 점수와 이 신념을 공격하는 글을 읽고 난 후의 신념 점수 간 차이를 구한 것임. “-”쪽의 점수가 클수록 신념 변화를 더 많이 일으킨 것임.

한 신념 분포들의 조작이 두 집단의 고정관념적인 응답을 근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고정관념과 반대되는 응답을 한 피험자들에게는 자연히 분포들의 의미가 거꾸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표 7의 평균치들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전혀 없었다. 그러나 여기서, 정답자들의 신념 저항의 정도(표 6)가 오답자들의 신념 저항의 정도(표 7)보다 전반적으로 크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집단정체와 불일치하는(inconsistent) 신념을 지닌 사람들(오답자들)이 특히 내집단으로부터의 지지율이 낮을 때 자신의 신념을 공격하는 글의 영향을 받기 쉬우며 자신의 집단정체와 일치하는 신념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덧붙여, 표 7에서 여성 여권운동가들의 경우 오답자의 수가 꽤 많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여성 여권운동가로서 이 실험에 참가한 Yale의 학부생들 중 상당수가 “여권운동가(feminist)”라는 정체감(identity)을 확고하게 지니고 있지 않았을 수 있음을 시사하거나, 또는 두 반대되는 신념 문항들로 구성된 집단정체 관련 문항들의 표현 방식이 전반적으로 비여권운동가 쪽으로 기운 응답을 유도하도록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내/외집단으로부터의 신념 지지율을 근거로 한 신념 저항의 예언 : 중다 회귀(multiple regression)의 결과

이 실험의 자료 전체를 이용하여 내/외집단으로부터의 신념 지지율이 집단정체 관련 신념의 변화에 대한 저항을 어느 정도 예언할 수 있는지를 알아 보고자 중다 회귀(multiple regression) 분석을 한 결과가 표 8에 나와 있다.

표 8에서 알 수 있듯이, 신념 저항을 예언하는데 있어서 내집단으로부터의 지지율은 4문항 중 3문항에서 유의미하였으나 외집단으로부터의 지지율은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신념의 변화에 대한 저항을 일으키는데 외집단의 지지보다 내집단의 지지가 더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경향은 앞의 실험들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실험의 두번째 예언(외집단으로부터의 지지는 신념 저항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언)은 지지되지 않았다. 왜냐 하면, 4개의 집단정체 관련 문항 중 한 문항에서만 회귀 계수가

〈표 8〉 내/외집단으로부터의 신념 지지율이 신념 변화에 대한 저항을 예언하는 정도(증다 회귀 계수 : 실험 3)

신념 문항들	예언 변인들(predictors)	
	내집단 지지율	외집단 지지율
1. 여성의 신체적 힘 (physical power)	0.0094* (.047)	0.0021 (.632)
2. 전통적인(traditional) 역할 부담	0.0253** (.004)	0.0144 (.083)
3. 여성의 정치·경제적 세력 향상	0.0179* (.013)	-0.0108 (.105)
4. 선천적인(inherent) 性差(sex differences)	0.0101 (.070)	0.0052 (.247)

주) 문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나와 있음. 회귀 계수들은 표준화되지 않은(unstandardized) 계수들임. 괄호안의 수치는 각 회귀 계수의 통계적 유의미도 수준임. \* p<.05. \*\*p<.01.

“-” 방향으로 나왔고 이것마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아마도 Yale 학부생들의 여권운동가 또는 비여권운동가라는 집단정체(group identity)가 학생들의 전공집단 정체(자연과학 전공생 또는 인문학 전공생)만큼 뚜렷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므로, 설득에 대한 저항(resistance to persuasion) 또는 신념극화(belief polarization)와 같은 현상은 개인의 집단 정체감이 확고하고 상대 집단과 실제적인 신념 차이가 뚜렷한 경우에만 일어날 수 있음을 암시한다.

## 전 체 논 의

새 실험의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예언했던 대로 (1) 집단정체(전공집단) 관련 신념들이 집단정체 비관련 신념들보다 더 잘 변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으며, (2) 내/외집단으로부터의 차별적 신념 지지 조건(80%의 내집단 구성원 및 20%의 외집단 구성원으로부터의 지지)이 비차별적 최대 지지 조건(80%의 내/외집단 구성원으로부터의 지지)보다 비록 전반적인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집단정체 관련 신념의 변화에 대한 저항을 일으키는데 더 효과적

이었다.

이러한 내/외집단으로부터의 차별적(differential) 신념 지지율의 효과는 전공 관련 신념을 연구 대상으로 한 실험 2에서는 자연과학 전공생들과 인문학 전공생들에게서 공히 관찰되었으나, 여권운동 관련 신념을 연구 대상으로 한 실험 3에서는 이 효과가 여학생 여권 운동가들(female feminists)에게서만 나타났고 남학생 비여권운동가들(male non-feminists)에게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아마도 학생들의 전공에 관한 집단정체(group identity)들은 자연과학이든 인문학이든 관계없이 비교적 뚜렷한 반면, 비여권 운동가라는 집단정체는 여권운동가라는 집단정체나 전공 관련 집단정체들에 비해 뚜렷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실험 1과 실험 2에서 학부생들이 아닌 대학원생들 또는 전문직 학자들을 피험자로 삼았거나 실험 3에서 대학생 집단이 아닌 실제 성인 집단의 여권운동가들과 반여권운동가들(anti-feminists)을 실험 대상으로 했다면, 이와 같은 집단 정체 관련 신념들의 지속성(변화에 대한 저항)이나 차별적 신념 지지율의 효과가 더 분명하게 드러났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실험 결과들에서 드러난 또 다른 중요한 발견은 내집단으로부터의 신념 지지율은 신념의 변화에 대한 저항에 긍정적인(positive) 영향을 주었으나, 외집단으로부터의 신념 지지율은 신념의 변화에 대한 저항에 부정적인(negative) 영향을 주는 경향이 있었다는 점이다. 증다 회귀 계수들(multiple regression coefficients)의 통계적 유의미도 수준은 높지 않았으나, 이와 같이 내/외집단으로부터의 신념 지지율이 집단정체 관련 신념들의 변화에 대한 저항에서 서로 상반되는 효과를 보이는 현상은 서로 의견이 반대되는 두 집단들 간의 역학 관계에 관한 중요한 시사점을 남긴다. 즉, 외집단이 근본적으로 내집단과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대립되어 있는 집단인 경우, 그 외집단으로부터의 지지가 아닌 공격(attack) 또는 위협(threat)이 오히려 정체 관련 신념들의 변화에 대한 저항을 불러 일으킬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집단간 신념대립의 지각이 개인의 집단정체 관련 신념들의 변화에 대한 저항을 가져올 수 있음을 보인 본 연구의 결과는 Price(1989)의 연구와 관련이 있다. Price(1989)는 사회적 정체 이론(social identity theory)을 확장 적용시켜 인지적(cognitive), 지각적



(perceptual), 및 행동적 (behavioral)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3단계 모델을 제안했다. 그에 따르면, “어떤 문제에 관한 집단 갈등(group conflict)을 강조하는 뉴스 보도는 (1) 그 뉴스를 들은 사람(recipient)으로 하여금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의 관점에서 그 문제를 생각 하도록 단서를 제공하고, 이것은 (2) 집단 의견(즉, 내집단 규범)을 더 극화(polarize) 또는 과장(exaggerate)하여 지각하도록 부추기며, 끝으로 (3) 이와 같이 과장된 집단 규범의 지각과 일치하는 개인적 의견(즉, 극화된 개인 의견)을 표현하도록 만든다”고 한다(Price, 1989, p.197).

이 모델을 지지하기 위해 Price(1989)는 집단간 갈등을 강조한 실험조건에서는 “인문계 전공생들, 자연계 전공생들과 필수과목 프로그램에 관해 마찰(Humanities, Science Majors at Odds over Core Program)”이라는 제목의 뉴스 기사를 만들어 피험자들에게 제시하였고, 집단간 갈등을 강조하지 않은 실험 조건에서는 “교육부, 필수과목 교과 과정에 관한 학생들의 의견을 조사하다(Task Force Probes Student Views on Core Curriculum)”라는 제목의 기사를 제시하였다. 집단간 갈등을 강조하지 않은 실험조건에서의 기사에서는 구체적인 집단간 차이를 강조하지 않고 단지 “어떤 학생들(some)”은 필수과목 추가를 반대하고 “다른 학생들(others)”은 찬성한다고 보도했다.

Price(1989)의 실험 결과에서는 인문계 전공생들만이 그의 예언대로 반응을 보였다. 즉, 인문계생들은 집단간 갈등이 강조되었을 때 자신들의 개인적인 의견을 극화시켰으며, 이 극화된 의견의 표현이 그들의 극화된 집단 규범의 지각과 관계가 있었다. 그러나 자연계생들의 경우는 비록 그들의 내집단 규범(ingroup norm) - 필수과목 추가에 반대하는 입장-을 더 극화시켜 지각하는 경향은 있었지만, 자기 자신들의 개인적인 의견을 더 극화시켜 표현하는 경향은 없었다. 그러므로 Price(1989)의 기대와는 달리, 내집단 규범의 극화된 지각(polarized perception of ingroup norm)이 반드시 개인 의견의 극화를 매개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본 연구에서 보여준 내/외집단으로부터의 차별적 신념 지지 상황에서의 개인의 신념 변화에 대한 저항을 매개할 가능성이 있는 심리학적 개념은 과연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의 하나로서, 신념의 가치(value)-도구적(instrumental) 또는 표현적

(expressive) 가치-에 대한 적대적 외집단의 위협(threat)이 신념의 변화에 대한 저항을 가져올 것이라고 제안할 수 있다.<sup>7)</sup> 이 위협 개념을 본 연구의 결과에 적용하여 해석한다면, 내/외집단으로부터의 차별적 지지(내집단으로부터의 지지와 외집단으로부터의 반대) 조건은 외집단으로부터의 위협이 있는 상황이고 비차별적 최대 지지(내/외집단 모두로부터의 지지) 조건은 어떤 위협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자가 후자보다 전반적인 사회적 지지 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념의 변화에 대한 저항을 더 크게 일으켰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Abelson, R. P. (1986). Beliefs are like possessions. *Journal of the Theory of Social Behavior*, 16 (3), 223-250.
- Crocker, J., & Luhtanen, R. (1990). Collective self-esteem and ingroup bia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1), 60-67.
- Johnson, B. T., & Eagly, A. H. (1989). Effects of involvement on persuasion: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06 (2), 290-314.
- Kanter, R. M. (1972). *Commitment and community: Communes and utopias in social perspectiv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Katz, D. (1960). The functional approach to the study of attitudes. *Public Opinion Quarterly*, 24, 163-204.
- Lydon, J. E., & Zanna, M. P. (1990). Commitment in the face of adversity: A value-affirmation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6), 1040-1047.
- Price, V. (1989). Social identification and public

<sup>7)</sup> 이 가설은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구성하는 본실험들(main experiments)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진다. 학위 논문의 원제목은 “Resistance of Identity-Relevant Beliefs Under Threat from an Antagonistic Outgroup”이었다.

- opinion: Effects of communicating group conflict. *Public Opinion Quarterly*, 53 (2), 197-224.
- Tajfel, H., Flament, C., Billig, M.G., & Bundy, R.F. (1971). Social categorization and intergroup behavior.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 149-177.
- Tajfel, H., & Turner, J. (1979). An integrative theory of intergroup conflict. In W.G. Austin & S. Worchel (Eds.),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pp.33-47). Monterey, CA: Brooks/Cole.
- Tajfel, H., & Turner, J. (1986). The social identity theory of intergroup behavior. In S. Worchel & W.G. Austin (Eds.),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pp.7-24). Chicago, IL: Nelson-Hall.
- Turner, J.C. (1978). Social categorization and social discrimination in the minimal group paradigm. In H. Tajfel (Ed.), *Differentiation between social groups: Studies in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pp. 101-140). London: Academic Press.
- Turner, J.C., Hogg, M.A., Oakes, P.J., Reicher, S.D., & Wetherell, M.S. (1987). *Rediscovering the social group: A self-categorization theory*. Oxford: Basil Blackwell.

## Effects of Differential Belief Supports from an Ingroup and an Outgroup on the Resistance of Identity-Relevant Beliefs to Persuasion

Eun-Yeong Na

Yale University

Three experiments were conducted to test two hypotheses on identity-relevant beliefs: (1) that individuals' beliefs relevant to their important group identities will resist more to persuasion than identity-irrelevant beliefs, and (2) that differential supports for initial beliefs from an ingroup and an outgroup (i.e., support from most of ingroup members and opposition from most of outgroup members) will bring about greater resistance to belief change than non-differential maximum supports (supports from most of ingroup and outgroup members), though the latter provides higher level of general social support than the former. Experiments 1 and 2 addressed Yale undergraduate students' major-relevant beliefs (science majors vs. humanities majors), and Experiment 3 dealt with their feminism-relevant beliefs (female feminists vs. male non-feminists). Computer presentation methods were used in all the three experiments: For each issue, subjects were first asked (1) to express their own initial belief, (2) to observe their ingroup's and outgroup's belief distributions and to read a communication attacking their initial belief, and finally (3) to express their own belief on the same issue again. The first hypothesis was supported by the results of Experiment 1, and the second by those of Experiment 2 and Experiment 3 (female feminists' responses). In addition, it was revealed that ingroup support could predict belief resistance positively but outgroup support negatively. This implies that threat or attack (rather than support) from an outgroup might induce the resistance of identity-relevant beliefs to persuasion.